SECTOR
UPDATE

2025. 12. 15

산업재팀

한영수 팀장
han.youngsoo@samsung.com

정소연 Research Associate
soyeon.chu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기계 주간 코멘트

HD가 인도로 간 까닭은?

- 선가: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 대비 1포인트 회복하여 185기록(소수점 단위의 미세 반등). 반면 중고선가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하여 191을 기록.
- 해운 지표: Clarksea(선박 수익 지표) 지수는 직전 주 대비 3.3% 하락. 벌크선 지표하락으로 인한 일종의 숨고르기 기간.
- 주간 코멘트 주제: HD현대그룹이 인도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에 인도의 선박 공급 능력과, 인도에서 생성되는 선박 수요를 점검.

WHAT'S THE STORY?

HD그룹의 인도진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HD현대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체 조선산업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조선산업의 공급능력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 HD그룹의 조선부문 역량이라면, 성공의 가능성도 높은 편. 하지만, HD그룹의 시각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

첫 번째, 인도 조선소와 울산 본사 사이에 사업적 중복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 국내업체들의 주력인 고부가선을 신규로 설립하는 조선사에서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오랜기간 운영되어온 HD현대중공업의 베트남 자회사도 아직은 유조선 위주의 매출 구성을 유지.

두 번째는 인도의 견고한 수요. 인도는 HD가 진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뛰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 인도는 글로벌 해운업에 다섯번째로 많은 선원을 공급하는(비중12%) 국가이며, 해상 수입량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7%) 국가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비중은 25%). 품목별로는 석탄 수입의 19%, 원유 수입의12%, LPG 수입의 16%를 점유. 해상 수출시장에서는 점유율 2%로 10번째로 큰 국가. 반면, 조선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수요 대비 미미. 선박 폐선 분야에서는 사장 점유율 34%로 전세계 2위. 하지만, 신조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불과(2025년 건조량 기준).

세 번째는 인도정부의 지원 의지. 투자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 현재 인도정부는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을 추진 중.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신조 및 수리 조선에서 글로벌 10대 국가로 발전하고, 다시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 및 해양강국이 되는 것. 이를 위해 향후 10년 간 1천척 이상의 상선과 군함을 발주하고, 조선 및 해운산업에 약 2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산업 뉴스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주가 Performance

(%)	1W	3M	YTD
HD 한국조선해양	4.2	7.7	96.7
HD 현대중공업	8.0	11.6	97.9
삼성중공업	2.7	19.8	133.2
한화오션	2.6	0.7	205.2
HD 현대미포	0.0	11.6	66.2
HD 현대일렉트릭	3.8	45.4	126.4
HD 현대건설기계	12.1	14.3	84.9
HD 현대	-0.2	40.4	163.3
HD 현대인프라코어	13.7	10.0	146.4
두산밥캣	4.2	14.9	48.7
한국항공우주	8.5	16.6	110.6
LIG 넥스원	2.1	-24.2	7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1	-5.0	196.1
효성중공업	-1.7	36.4	401.5
LS 일렉트릭	-1.2	60.4	215.3

▶ Valuation summary

(배, %)	P/B	P/E	ROE
HD 한국조선해양	2.5	14.0	18.8
HD 현대중공업	7.4	34.6	23.4
삼성중공업	5.3	37.0	15.3
한화오션	6.2	39.8	16.7
HD 현대미포	3.8	25.0	16.3
HD 현대일렉트릭	15.7	44.5	40.2
HD 현대건설기계	1.1	17.4	6.3
HD 현대	1.8	16.5	11.0
HD 현대인프라코어	1.6	18.8	8.8
두산밥캣	0.8	13.9	6.1
한국항공우주	6.1	52.3	12.1
LIG 넥스원	5.8	28.0	2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36.1	18.5
효성중공업	7.8	37.9	22.7
LS 일렉트릭	7.4	52.6	14.9

참고: 2025년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산업 뉴스

HJ중공업, 미 해군 함정 MRO 첫 계약: HJ중공업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4만톤급 군수지원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 이는 회사의 첫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계약. 해당 프로젝트는 내년 1월에 안벽에서 정비 작업을 시작한 후, 3월말 미 해군에 선박을 인도할 계획.

HD현대, NYK와 최대 8척 LNG 운반선 LOI체결: HD현대중공업이 일본선사인 NYK와 LNG운반선 관련 건조의향서를 체결. 해당 의향서는 4척 건조와 추가 4척에 대한 옵션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에 IFV 80% 현지화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 사업에 80% 현지 생산을 제안. 이는 유럽의 안보행동기금(SAFE)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 65% 역내 생산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해당 프로젝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KF41이 경쟁 중. 한화그룹은 루마니아를 유럽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페루, 한국산 전차 도입: 페루 육군이 활용할 지상장비를 한국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 해당 합의에는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의 공급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수출 실행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는 중남미를 대상으로한 지상장비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

LIG넥스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제 계약: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총 2,166억원 규모의 지대공 유도무기(M-SAM, 블록 III) 체계 개발 계약으 체결. 국방과학 연구소가 주관하는 해당 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천궁I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발 완료시기는 2030년이 목표.

미 국방, 한국은 재래식 방위사업에 주도적 역할 할 것: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이스라엘,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응한 모범동맹국으로 언급. 또한 그는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언급. 이어 열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 5차 회의에서도, 한국이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점이 명시.

KDDX 관련 불확실성 지속: 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는 물론, 하나의 업체가 단독 사업자로 선정될지 아니면 공동 개발로 추진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언론에서는 KDDX의 설계방식이 오는 22일 방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 보도.

호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오스탈 지분 확대 승인: 호주 정부가 한화그룹이 오스탈 조선소 지분을 19.9%까지 인수하는 것을 승인. 그룹은 호주 조선소의 1대 주주로 등극. 다만, 호주 정보는 19.9% 이상의 추가 지분 확대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화그룹도 호주 조선소의 경영권 인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도.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그룹은 오스탈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해진 상황.

한화오션, 원, 하청 성과급 동일화: 한화오션이 협력회사에도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 1.5만명의 협력사 근로자들의 혜택 예상. 이에 거제상공회의소는 한화오션의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 울산 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처럼 사내 협력사에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

(주간 조선지표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조선업 주요 지표

	현재	지난주 대비		2024년 말 대비	
	12월 12일	12월 5일	증감률 (%)	2024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4.6	184.4	0.1	189.2	-2.4
벌크선 (Capesize)	74.5	74.0	0.7	76.0	-2.0
유조선 (VLCC)	128.0	127.5	0.4	129.0	-0.8
유조선 (51,000DWT PC선)	49.0	48.5	1.0	52.0	-5.8
컨테이너선 (22,000TEU)	236.0	236.0	0.0	244.0	-3.3
컨테이너선 (13,000TEU)	146.0	146.0	0.0	153.0	-4.6
LNG선 (174,000m³)	248.0	248.0	0.0	260.0	-4.6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190.0	191.0	-0.5	176.0	8.0
벌크선 (Capesize)	66.0	66.0	0.0	62.0	6.5
유조선 (VLCC)	118.0	118.0	0.0	114.0	3.5
유조선 (51,000DWT PC선)	43.0	43.0	0.0	42.0	2.4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25,150	26,725	-5.9	18,500	35.9
벌크선 (Capesize, Non-Eco)	24,150	24,475	-1.3	17,500	38.0
유조선 (VLCC, Eco)	64,250	64,250	0.0	41,000	56.7
유조선 (VLCC, Non-Eco)	58,000	58,000	0.0	37,250	55.7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32,590	33,706	-3.3	21,965	48.4
BDI	2,205	2,727	-19.1	997	121.2
WS (사우디 기준)	130	130	0.0	40	225.0
CCFI	1,118	1,115	0.3	1,515	-26.2
SCFI	1,506	1,397	7.8	2,460	-38.8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4.1	5.2	-21.8	3.4	19.4
유가 (달러/배럴)***	57.4	60.1	-4.4	71.7	-19.9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296.0	304.8	-2.9	205.5	44.0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80.5	84.8	-5.0	87.0	-7.5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 spot, 천연가스는 Henry Hub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조선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5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한국조선해양*	4.2	4.9	7.7	96.7	2.5	14.0	18.8
HD현대중공업*	8.0	5.8	11.6	97.9	7.4	34.6	23.4
삼성중공업*	2.7	-0.2	19.8	133.2	5.3	37.0	15.3
한화오션*	2.6	-9.9	0.7	205.2	6.2	39.8	16.7
HD현대미포*	0.0	4.9	11.6	66.2	3.8	25.0	16.3
Yangzijiang	0.0	0.0	0.0	6.0	n/a	n/a	n/a
CSSC Holdings	1.7	2.6	9.4	16.7	2.4	9.0	28.5
Comec	1.3	-0.7	-10.0	-4.9	2.4	24.1	15.3
ST Engineering	-2.0	11.1	8.1	23.5	n/a	42.4	5.2
Sembcorp	2.1	0.6	n/a	79.0	8.8	31.8	29.0
Mitsubishi	0.5	-1.4	-9.4	2.9	1.1	22.9	5.0
Kawasaki	1.8	-3.9	8.9	87.0	5.7	51.8	11.4

참고: * 당사 추정
12월 12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기계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5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현대일렉트릭*	3.8	1.5	45.4	126.4	15.7	44.5	40.2
HD현대건설기계*	12.1	16.2	14.3	84.9	1.1	17.4	6.3
HD현대*	-0.2	-7.3	40.4	163.3	1.8	16.5	11.0
HD현대인프라코어*	13.7	20.2	10.0	146.4	1.6	18.8	8.8
두산밥캣*	4.2	5.8	14.9	48.7	0.8	13.9	6.1
한국항공우주*	8.5	11.2	16.6	110.6	6.1	52.3	12.1
LIG넥스원*	2.1	-5.7	-24.2	73.2	5.8	28.0	2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1	-1.0	-5.0	196.1	5.1	36.1	18.5
효성중공업*	-1.7	-12.1	36.4	401.5	7.8	37.9	22.7
LS일렉트릭*	-1.2	2.7	60.4	215.3	7.4	52.6	14.9
Lockheed Martin	6.2	5.1	1.9	-1.2	7.5	52.2	14.9
Raytheon	4.4	0.5	14.6	54.4	18.7	21.7	86.1
Siemens	1.5	-5.3	3.7	25.7	3.7	28.8	13.2
Caterpillar	-0.9	4.3	38.6	64.8	3.2	20.6	16.4
Komatsu	-1.2	-3.8	-3.2	16.3	15.1	32.1	50.5
Kubota	0.9	7.5	24.0	23.5	1.5	11.9	12.6

참고: * 당사 추정
12월 12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12월 12일 현재 삼성중공업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2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